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The JeonBuk Times



2025년 9월 24일(수) 제 3178호

김관영 도정 '인사 파탄' 반복…"시스템 허점"

서울장학숙관장전과논란상징적 임기내내도요직부실인사되풀이 상식밖인사처리도정신뢰바닥 '정실인사' 공정성·투명성훼손

⟨1⟩ 지난 2022년 3선에 도전하는 현 직 도지사와 재선급 국회의원 등 막강 한 후보들을 누르고 도백에 오른 김관 영 전북도지사.

그러나 지난 3년 김관영 도정은 도민 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사 시스템 부재 를 비롯해 각종 국제행사 졸속 운영, 전 주 완주 통합 블랙홀 등 각종 난맥상을 드러내며 기대 이하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는 여전하고 지역경제 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김관영 도정 3년의 현주소와 문제점, 인사 난맥상 등을 5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최근 서울 전북장학숙 관장에 전과 5 범이 임명됐다가 낙마하는 촌극이 빚 어졌다.

전북도는 유독 민선 8기 임기 초부터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 다. 초대 정무수석은 음주운전으로 물 의를 빚는가하면 야심차게 외부영입 한 기업유치 고위임원은 갑질과 지역 정서에 맞지않는 언행을 일삼다 사퇴 했다.

도 대변인실은 더 가관이다. 전직 대 변인들이 잇따라 갑질문제를 물러났는 데 이중 일부는 다시 도 산하기관에 재 취업했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 고 나간 팀장급 직원도 역시 산하기관 으로 영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 생했다.

지금도 도 중추부서 간부의 갑질행태 가 도마위에 올라 조만간 터질 것이라 는 복도통신이 도정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시민단체와 도의회는 지난 3년 간 수 차례 성명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전북 도의 인사 난맥상과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해외 파견자 선발과정에서의 잇딴 논란을 비롯해 익산 부시장 시절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간부를 도청 요직에 발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인 사가 이어지고 있다. 1년 반 전에는 이 같은 각종 논란이 연거푸 불거지자 도 정을 쇄신하겠다며 당시 비서실장을 교체했는데 전북도 서울중앙협력본부 장으로 보내며 책임 떠넘기기, 꼬리자 르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는 와중에 서울 장학숙 관장의 전과 5범 논란이 기름을 끼어 부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실패가 잇따 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서울장학숙 관장 인사에서 음주운전 3회를 포함한 전과5범 인물을 임명하여 논란을 일으 키면서 부실한 인사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 주고 말았다"며 "더욱 큰 문제는 전북도의 인사 파문이 한두 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서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행정 인사가 계속해서 도덕성과 공정 성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서울장 학숙 인사 파문은 인사 실패의 상징적 인 사례로 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의 정실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덧붙 였다.

/장정철 기자



'올림픽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전북자치도가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주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국토부·전북도 새만금신공항 항소, 생명 무시 폭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성명 "전북도·정치권,개발논리편승"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 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 도가 기어코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새만금 신공항의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 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 겠다는 폭거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

로 국민의 생명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찌 이런 극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구나 새만금신공항 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 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 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다"고 말

특히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 으로 직결되어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 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 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 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 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전북도당도 "기본계획 취 소 판결은 법원이 새만금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사 건이나 국토교통부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며, 또다 시 도민의 뜻과 법적 판단을 외면했다" 며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강 력히 항의하며,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

은 국토교통부만의 몫이 아니고 전북 도청은 정부의 일방적 개발 논리에 침 묵하거나 동조해 왔고 도민 삶과 환경 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 있

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 논리에 편승해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북 정치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북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지 역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부 사 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왔는데 법 원의 판결은 새만금신공항이 지역 발 전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 냈다"며 "전북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 한다면, 이는 전북발전과 미래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적 직무유기다"고 주장 /장정철 기자

道 추석 민생대책 '작년판 재탕' 말바꿔 돌려막기 빈축

물기책임관재활용·정부정책재포장 서민체감시책사실상제자리

전북도가 23일 2025 추석 종합대책 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추석 대 책을 가져다 '말만 바꿔 리바이벌'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도민 안전대응에 역점 을 둔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분야 14개 과 제를 중점 추진하고 실국장을 지역 물 가책임관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피력했 는데 사실상 지난해와 다를바가 없다.

지난해 추석대책은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으로 시작하며 4개 분 야 14개 과제도 판박이다. 특히 실국장 물가책임관도 그대로 베껴와 2025년 대책이라고 내놓는 등 사실상 도민들 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 대 20%로 확대나 특례보증, 민생지원 방안,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재난 교 통 대책 등도 상당수가 유사하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 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도민 불 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추석 명절 정책으 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 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최대 150만원) 및 할인율(최대 20%)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개편(1인가구 60만원, 2 인 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급) △상 생페이백(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 증가분 20% 환

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 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지만 이는 전 북도의 대책이 아니라 올해 새로 시행 되거나 변경되는 정부시책의 일환이 다. 이를 추석 대책이라는 포장해 내놓 은것.

또 명절 기간 도민 모두가 따뜻한 정 을 나눌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소외계 층을 두루 살피고, 누적된 부채와 고금 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 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추 진한다.

저소득 가정 2,940세대와 사회복지시 설 359개소에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 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 결식우려 독거노인 2,400여명에 게 떡, 전 등 명절음식을 배달할 계획이 다. 장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보 미 파견 활동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 년, 노숙인, 결식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Δ 회생보듬자금 특례보증(4,312억), △전 북 위기극복 특례보증(450억), △정책 자금 연계특례보증(300억) 등을 통해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명절 전 약 2주간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의 표준처 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 여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예년과 일부 금액 만 상이할 뿐 실제 서민, 도민들에게 외 닿는 새로운 시책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 장은 "명절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큰 틀 에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행안부 방 침을 참조하고 있다"며 "올해 농어민공 익수당을 가구당에서 명 당으로 바꾸 는 등 일부 바꾼 부분도 있다"고 해명

〈한병도 의원〉

"인터넷선거보도 정정·반론 1% 불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년 이후 6번의 선거에서 접수된 610건

의 이의신청 중 정정보도·반론보도 결 정은 8건(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는 접수 451건 중 단 한 건도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 중 177건(68.9%)이 기각됐다. 심의 기준 의 불명확과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 구 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인터넷 보도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제재 강화와 신속 처리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진안군, 농식품부 '저탄소에너지 공동시설' 지원 선정

국비22억확보지열기반시설구축 마령면스마트팜핵심기반역할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전환유도 공모선정으로조기착공전망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군이 농림축산 식품부의 '2026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 용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일 다. 원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에 지열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 용으로, 총사업비는 31억4천만 원에 이 른다. 이 중 70%인 22억 원이 국비로 지 원되며, 지열 천공, 열교환기 등 기반시 설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은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재생에너지 인 프라를 공동 구축해 농업 분야 온실가 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의 해당 사업은 부지 6.9ha, 온 실면적 4.5ha 규모로, 2028년까지 총 486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조성사 업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비 부담을 줄이고, 에 너지시설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

전북자치도와 진안군은 7월 공모 신 청 이후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쳤 으며, 농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선정에 힘을 쏟았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식품국장은 "진안군의 임대형 스마



도는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전북도>

트팜이 우리도는 물론 전국 제일의 스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 마트농업 일번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정철 기자

전북도, 국회입법박람회 참가…도 우수 정책 홍보

'지방소멸 대응' 핵심 주제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소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4일까 지 서울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 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 전북 이 가는 길,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도의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관심을 모았다. 또한, 제조혁신 프로젝 23일 밝혔다.

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 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리에 모여 우수 입법 및 정책을 홍보・논 의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 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화를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 수출 본격화

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 동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전략 등을 국민들 에게 소개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은 지역 균 형발전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적 정책 전환의 상징으로, 참여자들의 트는 첨단기술 기반의 생산 혁신을 통 이번 박람회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 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 주목받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활동도 전북도 의 전략 중 하나로 소개됐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속 전북 위상 강화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핵심 주 를 위한 노력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 법박람회에 참가해 도의 우수정책을 홍보한다.

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계 기가 되고 있다.

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정철 기자

성화'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입법·정 책 제안대회, 국민참여 강연, 지방의회 한편 2025 국회입법박람회는 '기후위 라운드테이블, 정책 홍보 부스 등 다양

완주산단 수소전문기업 ㈜아헤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 대정부 건의

1MW급 수전해 설비 공급 계약 인도 현지 공장 1만5천평 착공 도 "지역기업 해외 진출 모범 사례"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테크노밸리 2 급하게 된다. 산단 소재 수소전문기업 ㈜아헤스(대표 이중희)가 인도 신재생에너지업체 GH2 Solar Ltd.와 수출 협력을 본격 추진한

다고 23일 밝혔다. 1MW급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20억 원이며, 2025년 10월 이후 선적될 예정 이다. 올해 3월 양사 간 협약 이후 단기 간에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수출은 GH2 Solar의 대형 프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젝트 수주가 배경이다. 이 회사는 2024

감속 주행

년 8월 인도 태양광 에너지공사(SECI) 로부터 525MW 규모 입찰을 따냈다. 이 에 따라 ㈜아헤스는 앞으로 5년간 연 10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지속 공

㈜아헤스는 8월 말 GH2 Solar와의 합 작으로 인도 현지에 약 1만 5,000평 규 모의 수전해 설비 공장 착공에도 나섰 다. 도는 이번 성과를 지역 수소기업의 ㈜아헤스는 지난 8월 GH2 Solar와 해외 진출 모범 사례로 보고, 도내 인프 라와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헤스는 국내 최초로 7MW급 대용 량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캠프 배치 기업, 중 기부 딥테크 TIPS 기업과 산업부 수소

/장정철 기자

글로벌배터리경쟁서우위선점위해 세액공제·생산보조금도입등촉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 부를 상대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특별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 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제출한 '국가 차원의 이 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저가 배 터리 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전 기차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악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안한 안건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조등 켜기



문승우 의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생산보조 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지원 제도와 정 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월 지역 내 이 차전지 기업 10여 개, 관련 도 실·국장 들과 이차전지산업 육성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장정철 기자

안전거리 확보하기

문 의장은 이날

별법을 조속히 제정

"한미동맹 뒤 '갈취 외교' 국민경제 위기"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논평 미국 470조원 투자 요구 규탄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23일 논평 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 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미국 의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투자 요구 와 관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 에 섰다"며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어온 동맹이 지만 일방적인 굴종과 불평등을 전 제로 한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 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한 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 고 더불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에서 미국이 우선권을 독 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이는 표면상 '투자'일 뿐, 실상은 '노골적인 갈취'이며 '투 자의 탈을 쓴 기만적 사기극'에 불과 하고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원칙 을 훼손하고 국제협력의 근간을 심 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전례가 없는 규모 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해 외 직접투자 총액을 넘어서며, 현재 까지 미국 누적 투자 금액보다도 훨 씬 큰 금액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한 민국의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 두리째 파괴하려는 미국의 반주권 또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적 요구에 있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 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동맹이라 부 "최근 몇 년간 미국에 대한 관세 부 담이 폭증하고, 전문직 비자 수수료 까지 인상되며 인력의 이동마저 가 로막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명백 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며,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경 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직원 스마트폰 보도사진 실습 교육

전북개발공사는 23일 공사 1층 강당 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보도사진 A to Z'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언론홍보 사진 촬영에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게 효과적 으로 보도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실용 적인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경석 전북사진기자협회 간사가 강 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서는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 및 활용법 △상황별 촬 영 기초 △ 공공기관 보도자료 사진 우 수사례 분석 △모의 촬영실습 등이 진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실습 시간 다.



전북개발공사는 2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교육을 진행했다.

에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전문가의 즉 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촬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보도 자료 사진의 품질은 기관의 신뢰와 이 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 /장정철 기자

전북도 '하수 코로나19최고치' 명절 방역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 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추 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628.3 copies/mL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 며, 9월 1주차에도 604.5 copies/mL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률도 41.7% 에서 53.7%로 상승해 하수 분석 결과 와 실제 확진자 추세가 나란히 증가하 는 흐름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군산·익산·

임실 공공하수처리장 4곳의 하수를 정 기적으로 분석하며 2023년부터 감염병 유행 감시를 이어오고 있다. 하수 분석 은 확진자 통계보다 앞서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23일 연구원에 따르면 8월 4주차 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상 승세 역시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지표 로 평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밀폐된 실내·다중 행 사 참여 자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 ▲의료기관 및 감 염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기 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옆 차선 차량 거리 유지

/장정철 기자

비 오는 날 더욱 운전에 주의하세요!

전북타임스

완산구, 추석 연휴 대비 5대 분야 '특별' 종합대책 실시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완 산구는 시민·귀성객·관광객들의 안전한 연휴 보장을 위해 '특별' 종합대책을 세 워 실시한다.

완산구는 \triangle 안전 \triangle 환경 \triangle 복지 \triangle 교 통 △생활·경제 분야 등 시민들의 생활 과 밀접한 총 5개 분야 추석 명절 종합대 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는 추석 연휴 7일 동안 구청 내 종합 상황실 및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며 전 주를 찾는 귀성객과 전주 시민 안전을 책 임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 2255개 노선과 언더패스 등 교통시설물 15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귀성객 이용이 잦은 공원 및 하 천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불법 광고물과 개방화

장실, 녹지대, 가로수 등에 대한 일제 정 비에 나선다.

여기에 쓰레기 상습 투기 취약지 7개 중점관리구역에 환경관리원을 배치하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심

환경 만들기에 집중한다. 특히 10월 10일 까지 구청과 완산구 19개 동 주민센터에 이웃 돕기 창구를 마련해 훈훈한 명절 분 위기 조성에 공을 들인다.

더불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구는 특이 사항으로 대형유통시설과 재래시장, 효 자공원묘지 등을 중점으로 단속반을 운 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나아가 전통시장 노점단속 유예구역 일원을 중점으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을 깨끗이 치울 방침이다. '특별' 종합대 책은 23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다가오는 명절 기간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 철 저한 단속을 통해 모두가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안 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한우경진대회 개최

전주 김병길 농가 대상 수상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이 주최·주관하고 한우자조금관 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와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 섭)가 후원한 2025년 전북특별자 치도 한우경진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한우산업의 발 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한 우농가 간 선의의 경쟁과 기술교 류를 촉진하기 마련됐다.

한우경진대회는 도내 시군에서 출품한 한우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혈통의 한우 발굴 및 가축개량 성과를 확인하고, 축산농 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열 리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선 전북특별 자치도 축산과장,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안찬우 전북농협 경 제부본부장, 김대호 농협 완주군지 부장, 심재집 전북축협운영협의회 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 합장 및 관내 축협 조합장,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송규 봉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 부장, 오시창 축산물품질평가원 전 북지원장, 박진만 농협사료 전북지 사장, 정민석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장장, 서민석 NH 참예우조합공동 법인 대표, 한우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 선발된 5개 부문(암송아 지, 미경산우, 번식암소 1, 2, 3부) 에 총 55두가 출품됐고, 농장에서 의 1차 현장심사를 거쳐 엄선된 25 두가 대회장에 모여, 전문가 5명의 엄격한 심사로 진행 됐다.

심사결과 각 부문 대상으로 △ 암송아지 부문 전주시 반월동 김 병길 농가 △미경산우 부문 정읍 시 옹동면 최경표 농가 △번식암 소 1부문 정읍시 이평면 전선미 농 가 △번식암소 2부문 순창군 복흥 면 김영호 농가 △번식암소 3부문 고창군 해리면 김춘용 농가 등이 수상했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들 에게는 상패와 표창장,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은 표장장과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이번 한우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전북특 별자치도 한우사육농가의 자긍심 을 높이고 가축개량에 대한 의욕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 으로도 우수 개체 발굴을 통한 암 소개량 증대를 견인하고 전북 한 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완산구, 체납지방세 미납자 30일까지 강력 징수 계획 세워

공무원 25개반 47명 구성

추석을 앞두고 완산구는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지방세 미납자 상 대로 특별 징수에 들어선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2025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9월 30일까 지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 25개 반 47명을 구성했으며, 50억200만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구는 여기에 체납지방세 미납자 징수를 위해 맞춤형 방식을 채택하고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완산구에 따르면 "고액·고질체납 다"고 말했다. 자에 대해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

이번 징수를 위해 완산구는 구·동 세무 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병행할 방침 이다"고 전했다.

> 이날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함으 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 >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농업인 안전보호 향상 기반' 마련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해 '가결'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 호' 조례안이 가결됐다.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조례안은 시민 삶의 축 및 포상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확장현실(XR), 메



등이다. 조례안은 △조례

의 목적 및 정의, 시 장의 책무 △가상융

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기술 기

반 산업 육성 · 지원

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 역경제 활성화를 담았다.

김 의원은 "가상융합산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전했다.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의 고 말했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 조례안은 농작업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 하고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적용대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농업 인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 최지은 의원(덕진, 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무형유산의 진면목 엿보는 공연 마련

24일·26일 전주대사습청 전북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공개행사 진행

전주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주요 무형 유산 보유자·단체 진면목을 엿볼 수 있 신명 나는 국악소리와 기놀이 △성준숙 는 공연이 마련된다.

별자치도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공개행 사를 개최한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판소리와 기악, 춤 등 예능보유 량을 뽐낼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판소리 적벽가) △이길주(호남산조춤) 전주시와 사단법인 마당은 24일부터 △김소영(판소리 수궁가) △김무철(한량 오는 26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내 무) △송재영(판소리 심청가) △이상호 전주대사습청에서 전주시 소재 전북특 (판소리장단) 등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 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둘째 날에는 △대금과 피리, 해금, 장

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지성자(가야금산 조)의 공연 △불교 범패(노래)와 작법 자 17명과 보유단체 3단체가 참여해 기 (춤), 지화장엄까지 엿볼 수 있는 '영산작 가 설치되는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시 법보존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 마지막 날에는 △문정근(전라삼현승 무) 보유자 공연 △이선수(가곡) △김세 미(판소리 수궁가) △모보경(판소리 춘 향가) △장문희(판소리 심청가) △왕기 석(판소리 수궁가) △조용안(판소리장 단) △김영희(시조창) △박애숙(가야금 고 있는 무형유산 예능보유자들의 노력 병창) 보유자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대 뒤 설치된 스크 전통 예술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 구, 북으로 편성된 '전라삼현육각보존회' 린을 통해 출연자의 프로필과 공연별 사

고, 무형유산 보존과 계승을 넘어 현대적 의 공연 △김광숙(예기무) △가을밤 정 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션그래픽도 사용된다. 또, 관객석 좌우로 공간의 특 징을 살펴 소리의 흐름을 상징하는 배너 각적 효과도 선보일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통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과 관람객들 에게 무형유산 예능의 진면목을 직접 경 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혼신 을 다해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 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LX·언론진흥재단, 공간정보기반 보도역량 연수 개최

공간정보로재난보도전문성높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언론인 대 상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보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공간정보 기술을 활 용한 데이터 기반 심층 보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현장 견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서울연구원 김정옥 AI빅데이터랩 연구위원은 '공간정보 기반의 재난대 응 기술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정옥 연구위원은 "공간정보는 단 순히 재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각적 언어를 넘어, 예방, 실시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을 돕는 디지털 나침반 역할 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공간정보의 가치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올려 직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화, 다양 한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통합성, 그 리고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는 실시간 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방실 KBS 기상전문기자는 '재난 재해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는 '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탐사보도'를 통해 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탐사보도 방법론을 공유했다.

이어 참여 언론인들은 24일 일산 킨 텍스에서 개최되는 「K-GEO Festa」 에서 LX공사가 보유한 재난대응 기 술을 관람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업무협약 체결

AI 기반 디지털 감사기법 ESG 감사체계 구축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은 23 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상 임감사위원 김좌열)와 '인공지능(AI) 기 반 디지털 감사 및 이에스지(ESG) 관점 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규정 준수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 술을 감사에 적극 도입하고, 환경·사회· 지배 구조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감사체 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 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감사 및 이에스지(ESG) 관점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법 개발을 위한 상호 노력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감사 기준 및 절차 공동 개발 감사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내부통제 우수사례, 감사기법 등 공유 및 자료제공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30일에도 한 국공항보안(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감사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접목과 전 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교류 와 협력을 통해 감사 고도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감염관리 질향상 현장견학 세미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사회 의료기관 실무자를 대상으 로 감염관리 질향상을 위한 현장견학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과 중소병원 감염관리네트워트 등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견학 세미 나는 전북권역 의료기관들의 감염예 방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감염예방 대능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 다.

전북대병원에서 진행된 현장세미 나는 전북지역 11개 의료기관에 소속 된 감염관리 전담자들이 참여했으며,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와 진단검

사의학과와 병동 등을 견학하고 감염 관리 실무 역량을 쌓았다.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 리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와 현안 토의에 이어 현장견학을 통해 감염관 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다. 특히 전북대병원에서 이뤄지는 감염예방 과 감염관리 시례를 공유해 대응능력 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감염관리 전문성 향상과 감염예방 대 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알에프세미, 경영 투명성 강화 토대 마련

임시주주총회 원안 가결 당기순이익20억원기록 안정적흑자기조이어가

㈜알에프세미(대표이사 반재용)는 경영 투명성 강화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 투명성 강화는 22일 개최한 임 시주주총회에서의 상정된 모든 안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이룬 결과이

참고로 이번 임시주총은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주주 참여를 확대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결과에서 코스닥협회 추천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김영록, 감사 서동 민 안건이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전자적 방법 활용으로 출석 요 건이 충족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음을 보여준 것이

1999년 설립된 반도체 소자 및 LED 전문 기업 알에프세미는 ECM 칩과 TVS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주력 사 업으로 이루고 있다.

특히 ㈜알에프세미는 올해 상반기 매출 122억원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20 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흑자 기조 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크 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신임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내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주와의 소통 및 투명경영 체제 를 견고히 이어갈 전망이다.

반재용 대표이사는 "상반기 흑자 달 성과 임시주총 원안 가결은 경영 체질



㈜알에프세미는 경영 투명성 강화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영 투명성 강화는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모든 안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이룬 결과이다.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과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창출

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기업사랑도민회, 정보제공 역량강화

AI 시대 대응전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 (회장 윤방섭)는 "기업이 살아야 전 다. 북이 산다" 슬로건과 함께 AI 시대 에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사랑 도민회는 올해 창립 2주 년을 맞으며 그동안 회원기업 지원 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 업들을 펼쳤다.

올해 남은 하반기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컨설팅 범위를 확대해 AI시대 의 대응전략 등 회원기업들이 변화 하는 경영전략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업사랑리더스 포럼을 적 극 추진해 회원들과 함께 활용에 최 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

원장 김민욱)은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위해 시의에 맞는 강의와 주제를 선 정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담 하는 컨설팅 위주의 포럼을 운영한

경영애로해소를 위한 세무 노무 법 무 등 전문화된 컨설팅 시스템도 체 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가 풀을 확 대해 상시 상담체계도 갖춰 나갈 계

회원기업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는 회원간의 협조를 강화 하는 창구로 일원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윤방섭 회장은 "2천년대 들어 지금 처럼 불투명하고 어려운 기업환경을 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보 다는 생존을 걱정할 만큼 어려운 시 기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과 단합해 이겨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 표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도민 위해 2천만원 기부

건설업계 회원 자발적 모금 취약계측명절지원에사용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지역민 위한 '온 혔다. 정의 손길'을 흔들고 있다.

23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 자치도회장은 전북도청 행정부지사실 을 방문해 전북도민 나눔 위한 2천만원 을 전달했다.

소 회장이 전달한 성금 2천만원은 건 설업계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의 모금운동은 다가오는 추 석 명절을 앞에두고 어려움에 용기를 잃은 지역민들의 행복을 작게나마 찾아 주기 위해서다.

회 희망과 행복의 온기를 채우는데 지 역 건설업계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나눔을 통한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밝

이에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시 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대한건 설협회 전북자치도회 회원들에 깊은 감 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한 성금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 한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어려 성금을 전달한 소재철 회장은 "지역사 은 이웃 위한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23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북도청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해 전 북도민 나눔 위한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협회 기부 누적액은 총 5억 2500만원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3분기 FGI협의체 개최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3일 전주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2025년 3분 기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협의 체를 열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FGI협의 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 도가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 구축사업 일환이다.

협의체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 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 정 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3분기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위기징후 모니터링 결과 '주의' 단계로 분류된 전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대표와 전주지식산업센터장, 위 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방 것을 요청했다.

주요 안건은 △입주기업 현황과 경영 상 어려움 \triangle 산업 현안 및 건의사항 Δ 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확인할 + 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위기 대 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정부 지원사업 안내 △위기대응 정책 제언 등이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 성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승, 인력 확보 어려움, 내수 침체 등 복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합적인 경영 압박 요인을 지적하며, 이 다. 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신산업 전환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술 지 원과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을 확대해 줄

단장은 "이번 FGI협의체는 기업이 실 있는 소중한 창구"라며 "기업 현장의 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목소리를 반영해 위기 대응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는 지난 2023년부터 전북테크노파크 에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분기별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 기에 감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지역중소기업이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 서도 회복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김영태 기자

농관원,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 획이다.

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 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북지원은 올해부 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 목을 대상으로, 4월~6월에는 하계작물 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에는 추계작 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

김민욱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전개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오는 안내자료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펼친 11월까지 전북테크노파크 6개 입주기 다. 관을 순회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달제도 및 나라장 터 활용 경험이 부족한 지역 기업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벤처나라·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단계 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각 시설별로 사전 예약과 현 장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조달청 전담 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해 △조달제도 설 명 △기업 맞춤형 1:1 상담 △제도별

사후에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필요시 심화 컨설팅이나 수요기관 연계까지 지 원할 계획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 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부족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 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저메탄 사료 개발 현황 등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4일 구방향등이모색됐다.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 (ITCC)에서 국내 사료산업 발전과 저메 탄 사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사료 전 견 등이 오갔다. 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내 배합사료 및 사료첨 가제 등 관련 업체 연구개발(R&D) 담 꾸준히 증가했다. 당자 및 연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사료산업 관련 정 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립축산 과학원의 저메탄 사료 개발 현황과 향 후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홍승탁 사무관은 '국 내 사료산업 정책 현황', 제일사료 이주 환 박사는 '국내 사료산업 현황 및 주요 중이다. 연구 내용'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다.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강환구 연구관 이 '저메탄 사료 소재 개발 현황 및 향 후 계획'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종합 토론 시간을 통해 국내 사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료산업 발전 위한 현장 수요 정책과 연

더불어 국립축산과학원 메탄저감제 개발 현황 공유로 산업화 조기 실현 의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2020년 2132만 톤에서 2024년 2407만 톤으로

그러나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국 제 곡물가 변동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년 kg당 479원에서 2024년 622원 까지 상승해 축산농가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해 2030년까지 한·육우 사료 30%를 저 메탄 사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 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정기적인 협 의회를 개최해 국내 사료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김영태 기자

호남통계청, 통계분석 경진대회 결과 발표

데이터 활용 다양한 가능성 확인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정구현)은 '2025 년 호남권 통계분석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다양한 분야 통계 이용자 총 14개 팀이 4월~7월까지 약 4 남유림·이예진)'이 우수로 선정됐다. 개월간 분석한 통계분석 결과 등이 제출

제출된 보고서에는 통계데이터센터 (SDC) 제공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데이터 정책적 활용과 다양한 분석가능성 내용 들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외부이용자 수상작으로는 감사와 수상팀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 '국민건강영양조시를 활용한 건강 MBTI 개발과 맞춤형 관리 전략 제시(전남대학 교, 윤승아·조용석·최희석)'가 최우수상, '해양사고와 산업재해의 정책 대응 비대 칭성 분석(전북대학교, 송하은)'이 우수

상을 수상했다.

내부참여자 수상작으로는 '랜덤포레스 트를 통한 장수군 산불예방 CCTV 설치 구역 예측(전주사무소, 송지헌·최웅렬)' 이 최우수, '광주광역시 폭염 분석(군집 분석을 중심으로)(목포사무소, 정유희·

이외 'MZ세대 맞춤형 답례품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 미닝 리워드+(남원사무 소, 김수경·안솔빈)', '성심당의 인지도 상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순천사무소, 오정하·위현서·장하 림)'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분 석 경진대회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한다"며 "호남지방통계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확산과 국민들이 좀 더 편 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전주시에 도서 200여권 기부

'書프라이즈 1호!' 도서 전달

전북은행이 도서 200여 권(300만원 상 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과 함께 書프라이즈 1호!'라 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전 북은행은 청년층을 위한 추천 도서와 노인들을 위한 큰글자도서 등 세대별 맞춤형 도서를 준비해 전달했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서취약계층과 시민들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북은행의 '書프라이즈 1호' 도 전주시는 23일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서 기부에 이어 자발적인 도서 기부를 약속한 기업들과 2호·3호 릴레이를 계 속 이어갈 계획이다.

>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번 도서 기 부가 청년과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의 미 있는 자산이 돼 책을 통한 소통과 나 눔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 > /정소민 기자

5

전북교육청, 수시 면접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대비

교사 면접 지도 역량 학생 준비도 | 대학별 고사 효율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 년도 대입 수시모집 면접평가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

교사와 학생에게 고난도 면접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사의 면접 지도 역 량과 학생의 준비도를 강화하고, 대학별 고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대학들은 수시 전형 간소화로 단 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순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 변별이 어려 워짐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종합전형에서 면접 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사 대상 면접 지도 역량 강화 △학생 대상 모의면접 제공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시문 기반 면 접'을 운영해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면접 대비를 돕는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 방식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논리적·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

먼저 교사 연수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장한별 대입지원관(전주진로진학센 터), 손선열 대입지원관(남원진로진학센 터)이 강사로 참여해 대학 평가자의 시각 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과 '의약학계 열 면접평가'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 전주사대부설고 박상용 교사가 학교 에서의 면접 평가 지도방안'이라는 주제 로 면접 컨설턴트의 역할과 현장 중심의 지도 사례를 공유한다.

10월에는 학생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특강에는 최승후 대화고 교사 가 강사로 나서 '제시문 기반 면접 평가의 이해와 전략'에 대해 안내하고, 내달 18일 부터 19일에는 대면으로 제시문 기반 및 MMI 모의면접 평가'를 진행해 수험생들

이 실전 면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학교로 찾아 가는 고교별 모의면접 컨설팅'을 통해 60 여 개의 학교를 직접 방문, 면접 특강과 모 의면접을 지원한다.

현재 단위 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고 있 으며, 신청학교가 많을 경우 읍·면 지역 고 교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2026학년도 수 시모집은 의대 정원 원복과 무전공 학과 내달 15일 오후 5~7시 온라인 줌으로 선발 기조 유지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 실성이 크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설명 회, 모의면접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면접 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2025.9.23.10:30 장소 전북특별 고육청 주의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전북! 때표 노병섭

새참교육 "미성년자 등하굣길 안전 대책 시급"

아동안전특별법제정등 실질적 대응 마련 필요

최근 전북에서 미성년자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자체 의 실질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이하 새 참교육)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 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위협에 대 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수립을 촉구했다.

새참교육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예바하기 위해 교 육청과 경찰,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 과 대책을 촉구한다"며 "어린이 유 괴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예 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 대책으로 △아동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전담 기구 신

설 △정규 교육과정 속 안전교육 강 화와 모의훈련 정례화 △시니어 클 럽 및 퇴직교사 중심 방법 자율대 활용 △마을 단위 안심귀가 거점 지 정 △범죄 노출 아동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 전반 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 다고 제시했다.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반짝 대책'으로는 근본적 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청과 정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 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노 대표 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는 12월까지는 선두 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 고 있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 이고 있고, 새참교육을 중심으로 단 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남원시가족센터와 한국어학당 설립 협력

글로컬캠퍼스 한국어학당 개설·한국어 교육 등 협력

최근 전북가족센터협회와 협약을 통 해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 스에 한국어학당 설립을 위한 첫 행보 에 나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3 일 오전 11시 남원가족센터와 손을 맞 협력체계도 가동해 외국인 유학생 유 잡고 한국어학당 설립을 구체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 조화림 국제 처장, 김태연 언어교육부처장과 나찬 도 남원시가족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어학당 설립과 운영 협력 을 통해 남원시 지역 외국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내에 한국어학당 개설과 지역 정주 외국인 · 다문화 가정 · 중도입

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공동 프 로그램 개발 등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 기로 했다.

특히 남원 글로컬캠퍼스 완공 전까지 는 남원시 이음센터를 거점으로 외국 인 대상 특강을 운영하는 지역 외국인 을 위한 실질적 교육을 운영하고, 전북 대-남원시-남원시가족센터 간 전방위 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실제 교육이 운영되는 남원시 이음센 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914㎡ 규모의 복합건물로, 현재 남원발전연구소와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입 주해 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글로컬캠퍼스에 새로 개설되는 글로컬커머스학과, 한 국어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는 지 역과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 라며 "전북가족센터협회와의 협약이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한국어학당 설립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선 전북대 학교가 23일 오전 11시 남원가족센터와 손을 맞잡고 한국어학당 설립을 구체화했다.

원시가족센터와의 협력은 그집을 든든 조했다.

집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면, 오늘 남 히 떠받칠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 테마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청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 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북교육청은 본청 1층 현관에 '청렴 펀(Fun)한 공간'을 조성, 직원과 방문객 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청렴 테 마 체험형 프로그램을 오는 26일까지 운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렴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로 구성, 운영 중이다.

먼저 '청렴 공모전 갤러리'에서는 2025 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총 20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내마음의 낙서장'은 직장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희망 사항을 익명으로 기

'청렴 사진관'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찍고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며 '청렴소식알리미'는 청렴도 평가 안내 배 너를 설치해 청렴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같은 기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서도 자체적으로 '정렴소식알리미' 공긴

이홍열 감사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펀(Fun)한 공간'은 네 가지 코너 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가 족이 서로 소통하고, 청렴의 가치를 공 유해 더욱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히 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교원 부담 덜고, 학생 안전 강화

아저 지원 보조인력 배치 인력풀 구축 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의 현장 체험학습 인솔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 을 강화하기 위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2학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 한 학교에는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

보조인력은 버스 승·하차 지도, 도보 이동 시 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현장에서 다양한 안전 지원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 지부와 협력해 퇴직공무원 742명을 중 심으로 보조인력 인력풀도 새롭게 구성, 운영한다.

풍부한 308명은 안선요원으로 능독되 며, 이들은 개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진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퇴직공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기타보조인력으 줄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로 활동하게 된다.

사 전북지사에 위탁해 진행 중이며 △현 장체험학습의 이해와 역할 △심폐소생

며, 실제 배치는 시·군 교육지원청이 담 이중 경찰·소방·교원 등 안전 경험이 술(CPR) Δ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도폐쇄 응급대처 등의 교육이 이뤄 무원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현 나머지 434명은 도교육청 주관 기본 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교원의 부담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에 참여 현재 기타보조인력 교육은 대한적십자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약속



안쓰는 조명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멀티탭 끄기!〉





점심시간 모미터 끄기!

정읍시, 전 세대 참여형 축제 '책축제 달빟소풍' 26~27일 열려

정읍시가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 참여형 축제 '제6회 책축제 달빛소풍'을 오 는 26일과 27일 정읍시립중앙도서관과 독 서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일기 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맑음'을 슬로건으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연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아카펠라팀 '오직목소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독서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기념식으로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유공시민 표창, 책읽는 가족 과 책읽기 마라톤 우수자 시상, 시민작가 동화창작반 ·에세이반의 출간기념식이 진 행된다. 26일에는 방송인 출신 고명환 작 가가 'AI시대, 해답은 고전에 있다'를 주제 로 강연을 펼치고, 이보현 작가가 초보자를 위한 독립출판 세계를 소개한다. 27일에는 2021년 BIB 황금사과상 수상자인 이명애 그림책 작가가 '작은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창작 과정을 들려 준다.

시는 이번 책축제가 시민 모두가 책과 도 서관을 더 가까이하는 계기가 되고, 온 가 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 마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10월 13일~25일 광견병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가 광견병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 해,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지역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하반기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 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 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이승현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 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 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 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꼭 접종해야 한다"라 며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능 반려견 에티켓도 지켜 날라"고 당 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 평가회 열려

23일 익산에서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평가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회장 박래운)는 삼기면과 황등면 등에서 '지역특 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사업' 평가 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고구 마 신품종 '호풍미'의 생육상태와 수량성을 확인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농업인들 은 시범포 운영 전반에도 만족감을 보였다. 호풍미는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된 품종으로, 2025년 기준 점유율 8.5%를 기록하고 있다.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수량 안정성 이 높고, 10a당 3,399kg의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또한 덩굴쪼김병, 더뎅이병, 뿌리혹선충 등에 강해 경쟁력을 갖췄다

박래운 회장은 "우수한 신품종이 지역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시험포 운영에 최 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품종으로 시범 포를 확대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농 업인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I.B.T.F. in 새만금' 성공 개최 위해 맞손

새만금개발청·전북도 군산대 등 기업홍보 행정지원 업무협약

군산시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국립군산대, 군장대, 기전 대, 전북테크노파크 및 군산새만금컨벤 션센터와 기업홍보 및 행정지원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 월 23일~10월 24일 군산새만금 컨벤 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차전지 국제 콘퍼런스로서 '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를 주제로 국내 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 하며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현재와 미래기술에 대한 정보공 유, 글로벌 기업·기관간 협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 해 국내·외 우수 기업 등이 연사로 대 거 참여해 총 18개 내외의 세션이 운영 될 계획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다. 로 지정된 후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

활기찬 농촌학교 만들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기대

정읍시가 칠보면에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며 농촌유학

시는 학부모들의 정주 여건 선호를

반영해 농촌유학 거주시설 정주여건개

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이용시설 1동

과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가족체

이번 사업에는 총 40억원이 투입된

시는 농촌유학 희망 학생과 가족들이 있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 실시 거주시설 부족이나 불편으로 인해 유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형 주거단지를 추진 중이다.

다.

화되고 있다.



정읍천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정읍시>

소재 중심에서 전(全)주기 생태계 구축 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이번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새 만금 산업단지의 장점과 각종 지원정 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추가적인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가 친

정읍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저장장치 등 미 로 빠르게 부상했고, 현재는 이차전지 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기술 교류 활성 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이어 "군산시는 글로벌 산업의 흐름 에 맞추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력 을 갖추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및 기업지원 체 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나서

맞춤형 교육 참가자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2 월 16일까지 청년 맞춤형 금융교 육 '청년 익테크'를 진행한다고 23 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익테크'는 익산과 재테크를 결합해 만든 명칭으로, 익산 청년들이 현명하게 돈을 관리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 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실생활에 밀접한 금 융 지식을 중심으로 △월급 관리 기초와 세금 이해 △금융 상품과 경제 시장의 흐름 △노후 준비와 연금 체계 등 3개 강좌로 구성됐다. 교육은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해 A·B·C반으로 나눠 반별 3회씩 운 영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 분부터 8시 30분까지 익산청년시 청에서 열린다.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는 18~39 세 청년으로, 반별 15명씩 총 45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 (youthforest.iksan.go.kr)에서 가능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 익테크 는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설 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 육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청년이 참여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 대응

군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25년도 징수목표액 108 억 원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 동을 전개한다.

먼저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 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 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 은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의 은닉재 양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 산을 추적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압 고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 류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 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실제로 군산시는 상반기에 5명의 고 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 시해 2,3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공매사이트(온비드)에서 9월 현재 2회 차 공매가 진행돼 33점이 낙찰됐으며, 1,300만 원의 낙찰대금은 지방세 체닙 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 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 은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포차 포함 상습·고질 체납 차 /군산=지송길 기자 계획이다.

익산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영예'

설계, 도원가 심사 및 일상감사 능 행 - 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샂았던 만큼, 이 -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가속들이 편안

정 절차를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까지 번 사업이 농촌유학생 수 증가로 이어 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가장

완료해 9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활기찬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폐교 위기에

이로써 농촌유학 인프라 구축이 가시 농촌학교 만들기와 지역 소멸 위기 극 놓인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

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전북 유일 수상 지방자치 우수성 입증

익산시가 주민자치 강화와 시민 삶의 다.

익산시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원 주최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를 안았다.

중 유일하다.

시대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을 선도적 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함으로써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 자치분권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열정을 모아 이 상이다.

기념관에서 열린 새한국자치발전연구 마을자치연금 시행 및 조례 제정 △신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 청년 취·창업 플랫폼 '청년시청' 운영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최초 '나눔곳간' 복지 플랫폼 도

이번 수상은 전북 도내 기초지자체 입 △주민이 직접 만드는 문화도시 조 성 등 다양한 시책이 주민자치 실현과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유학이 활성화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시의회, 공 른 값진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전국 최초 로도 시민과 함께 주민자치를 강화하 고, 실질적인 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 △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익산을 만들어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기 불법배출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9월 18일까지 누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 적 단속 건수는 700건을 넘어섰으며, 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일제단속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 과와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은 합동 점 검반을 편성하고, 직접 쓰레기 봉투를 속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배출된 쓰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에는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익산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생활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생활쓰레기 불 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 법배출 단속 이후 종량제 봉투 사용 법 무단투기 등이다. 익산시 청소자원 등 올바른 배출 문화가 자리 잡고 있 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다면 머지않아 익산이 깨끗하고 쾌적 뜯어 증거물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단 한 환경을 가진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 물가부담완화시장활성화

정읍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물가 부담 중 당일 합산 금액 5만원 이상 9만원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된다. 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 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높이기 위해 이 태인시장 상인회사무실 1층에서 가능 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에서 일 하다. 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진행되며, 9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미만 구매 시 1만원, 9만원 이상 구매

환급은 연지시장 번영회 사무실과 신

또한 샘고을시장에서는 농림축산

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 비 지원 환급 행사도 열린다. 10월 1일 행사는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에서 부터 5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전통시 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장 방 문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치유농업' 퇴사자 사회 적응 도와

로그램은 회당 15명 규모로 총 15회에 대감을 높이는 기회를 갖는다. 걸쳐, 퇴직 이후 겪을 수 있는 우울감 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격는 시민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정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 적 안정과 활력을 찾길 바란다"며 "앞 을 두고 있다.

반려식물 키우기 △계절 꽃 심기 등 식물 재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성취감을 얻는다. 또한 △협동화분 만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5일부 들기 △공기정화식물 기부 등 공동 참 터 퇴직자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돕 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

시 관계자는 "퇴직 이후 삶의 변화를 으로도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은 △공기정화식물 심기 △ 발굴·운영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고,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인스코비,지역상품권기술고도화

블록체인 기반 운영 핀테크 활용 결제 시스템 개선 등 협력

고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 페이'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인스코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8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블록체 인 기반의 고창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거래 내역이 위·변조 없이 기록돼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부정 사용이나 이중 지급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는 2020년 고창사랑카드를 출시한 이후 누적 발행 액 2,100억원을 기록하며 군민들의 소비

생활 중심으로 잡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 기로 상품권의 투명한 운영과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결합된 디지털 지역사 랑상품권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새만금신항 뮤직 페스티벌' 팡파르

김제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 기념 비전 공유

녁 6시 30분부터 새만금 2호방조제 바 람쉼터 일원에서 추석맞이, 지평선축 제 전야제 형식으로 '새만금신항 뮤직 는 불꽃 공연으로, 시민들의 축제 참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김제의 바다, 백년의 약속'을 주제로 열리며 남녀노 직 페스티벌은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 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과 불 꽃쇼가 어우러진 가을밤의 한마당 잔 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치로 꾸며진다.

환영, 국내 정상급 보컬그룹 V.O.S가 출 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공연 중간에는 새만금신항의 조성 현 황과 무역항 지정 경과, 지속가능한 항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27일 저 만 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마련된다.

>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밤하늘을 수놓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신항 뮤 진 소통의 장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신항이 이날 무대에는 감미로운 보컬리스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 두선정, '통기타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 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



아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실현 '최선'

유공자표창수여주민참여 공연등복지박람회성황

부안군은 23일 부안해뜰마루 지방정 원 자연마당정원에서 제26회 사회복지 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박람회를 열었

이번 행사는 "함께 Green 삶, 함께 누 리는 복지"를 주제로, 군민과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함께해 사회 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 가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적 비전을 공 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

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며, 지역 주민이 참여한 공연과 퍼포먼 스가 더해져 행사장은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로 물들었다.

이어 열린 복지박람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와 체험 프 로그램이 운영돼 군민들의 큰 호응을

권익현 부안군수는 "사회복지는 군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산이며, 이번 행사가 군민과 복지 현장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 한 유공자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 한다"고 전하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 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 부안군은 앞으로도 부안군사회복지 협의회,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 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더불어 행복한 부안

> >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전북말산업복합센터 현장 행정

시설 운영 현황 점검 기관 애로사항 청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희옥 부시 장이 지난 22일 전북말산업복합센터 (용지면)를 방문해 말산업 관련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 취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 다.

전북말산업복합센터는 지난 2013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정됐 으며, 2019년에 마사과와 재활승마과 를 말산업스포츠재활과로 개편해 현재 60여명의 대학생과 승용마 74필을 보 유 관리하고 있으며, 말조련사, 승마지 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산업 전문 교육을 통해 국내 말산업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실내·외 마장의 시설 개보 수 및 교육 장비와 전문 인력 육성 교



전북말산업복합센터와 협력해 관내 초·중·고 학생 승마 체험과 유소년 승 마대회 및 재활승마 한마당 등의 사업 을 지원해 승마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다.

또, 김 부시장은 이날 전북말산업복합 센터와 더불어 김제시유기동물보호센 육 등을 지원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 터를 방문해 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성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을 점검하고 유기동물 포획단의 근무 환

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김제시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와 국내 말 산업 미래 인재 육성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김제 시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통한 유기견 구 조·보호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미래 팝업스토어' 열려

27일 담마북카페서 개최

고창군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 터 담마북카페에서 2025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미래 팝업스토어'를

이번 행사는 '청년이 만드는 미 다. 래, 고창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이 직접 주인공이 돼 목소리를 내고,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과 소 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려진다.

스킹 공연을 비롯해 기념식과 제1 회 고창군 청년상 시상식이 진행된

다. 내부 행사장에서는 군에서 지 원한 청년창업가(10개소)의 성과제 품 전시회가 준비돼 있다. 방문객들 에게는 커피와 쿠키도 제공돼, 가족 단위 군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청년의 날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청 년이 직접 주도하는 청년도시 고창 의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지역의 야외 행사장에서는 청년들의 버 미래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내년 신규시책・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미래 성장동력 확보 최우선 정했다.

부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 에서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신규시책 및 2027~202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 리로,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부안군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 가능한 전략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도 있 게 진행됐다.

군은 앞서 25개 관·과·소의 적극적 인 참여로 총 167건의 사업을 발굴했 으며, 1차 국별 사전 심사를 거쳐 59건 을 이번 대면 보고회 심사 대상으로 확

이날 열린 2차 대면 보고회에서는 필 요성, 정책 적합성, 예산확보 가능성, 군민 체감 효과 등 각 부서의 사업 제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특히 생활 밀 착형 민생 시책과 미래 성장 전략사업 을 집중 논의하며 군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공 공요금 지원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등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 관련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정화영 부군수는 "전 부서는 창의적 발상과 전략적 안목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가을 정취 속 읍면동 농악발표회 성료

전통농악 계승·지역 화합

벽골제 단야마당에서 김제시 읍면동 농악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읍면동 농악단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 오랜 시간 갈고닦은 기량과 개성 을 무대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며, 농악 특유의 신명과 각 지역의 색깔 을 고스란히 담아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번 발표 회 결과, 신풍동의 '신풍 한마음 농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김제시 대 표 자격으로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 지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44회 전 북특별자치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김제 농악이 세대를 잇는 문화유산으로 발 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

고창군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을 알리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23일 오전 고창 군청 일원에서 실시했다.

군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창 29일까지 개인정보 파기주간을 운영 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 보 유·노출 사고 및 해킹 등 피해를 는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높이 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에서

카드뉴스 요약본을 배포함으로써 △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요령 △생활 속 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 대 응수칙 등을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8월 25일부터 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 리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 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만성 질환 예방 강화 '근테크' 그룹운동 참여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보건소는 중년 및 노 년층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낙상 사고 위험증가와 비만·만성 질환 예방 강화에 선제적 대응한다고 밝혔

보건소는 이에 따라 근력 향상 운동을 제 공하고 성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고자 그룹운동 프로그램인 '근테크! 근육량 지키 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 개월간 주 1~2회, 총 14회에 걸쳐 운영되며, 만 50세 이상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김제시 보건소 체력증진실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사전·사후 인바디 및 체력 측정 △비만 및 만성질환 관 리를 위한 그룹 근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 🛆 건강생활 실천 교육이 포함된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근테크! 근 육량 지키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근력 및 신체 기능을 향상하고, 올바른 운동 습관을 형성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그룹 활동을 통해 운동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3회 곰소만 왕새우축제' 부안 곰소다용도부지서 막 올려

가을철 곰소만에 왕새우 출하 시기에 즈 음해 '제3회 곰소만 왕새우축제'가 오는 오 늘부터 10월 4일까지 '곰소만 왕새우와 뽕 주의 향기, 부안에서 만나요'라는 주제 아 래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 일원에서 개최

이번 축제는 곰소만 왕새우와 부안 뽕주 의 로컬 브랜드 축제로 부안군 왕새우 양 식어가들이 람사르습지보호지역인 곰소만 (줄포만) 청정갯벌에서 정성어린 땀방울로 길러낸 왕새우의 소비촉진과 곰소만 왕새 우만의 특색있는 오동통한 식감과 쫄깃하 고 담백한 맛과 부안 뽕주의 은은한 오디향 과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뽕주가 어우러지 는 로컬 브랜드 축제를 준비했다.

김태수 곰소만 왕새우 생산자 어민협회 대표는 "곰소만 왕새우의 통통하고 싱싱하 고 영양가 높은 왕새우와 부안 뽕주의 로 컬 브랜드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왕새우 참맛을 느끼고, 작은 소소한 추억도 담아가기 위해서 꼭 축제장을 찾아주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세대 간 화합·존중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고창군이 23일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제 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 다.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지회장 이공진) 주관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화합과 존중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75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 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내빈 소개 △노인강령 낭독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24명에 대 한 표창장 수여 △기탁식 △지회장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에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고창 군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고창청춘대학에 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식전 공연으로 판소리 보존회의 깊은 울 림이 있는 판소리 공연과 함께 우아한 부 채춤이 어르신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사회에서 모범 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신 모든 분 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헌신이 지 금의 고창을 만든 만큼, 앞으로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농협과 협력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3% 지원 자금소진시까지신청가능

행과 함께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완주군과 전북신용보 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 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 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은행

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원, 농협은행이 2억 원을 출연해 출연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 금의 12.5배인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 증을 지원한다.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 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 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 지 지원되며, 대출이자의 3%를 3년간 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이번 완주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 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완주군이 2억 재단 완주지점(용진읍 운곡2로 3/전화 247-9551)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 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특 례보증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민공청회 순회 개최

29~30일 동·서·중부권 지구별 '26~'35년 농촌기본계획 수립

남원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 로,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 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삶터·일 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 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2035년 남원 시 농촌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하는 10 시 이백 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 년단위 계획으로서 '사람과 산업, 문화 가 연결되는 상생농촌, 활력 넘치는 남 원'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공청회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부·중 부·서부 3개 지구별로 각각 개최되며, 농촌공간계획은 지난해 3월 29일 시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을 포 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함하는 ▲동부권역은 9월 29일 월요일 14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 최될 예정이며,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을 포함하는 ▲서부권 역은 9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금지누 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 리센터에서 진행되며, 주천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이백면, 산동면

을 포함하는 ▲중부권역은 같은 날 14

공청회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과 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방향 등을 설명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남원시 지역활력과장은 "이번 공청 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농촌 공간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19회 사회복지대회 성황 '화합의 장'

사회복지 유공자 16명 표창 지역 소외 이웃 위한 헌신 기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 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23일 순 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사회 복지 관계자와 기관·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대회는 완주풍류학교의 식전 공 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기념식에 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 유공 자 16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순창군지회, 옥천요양원, 순창군사회복 지협의회 읍·면 지회 등 다양한 현장에 서 헌신해 온 인물들이다. 또한, 오랫동 안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 을 통해 노고를 인정받았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23일 순창군장애인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순창군>

행사는 사회복지 윤리선언 낭독과 기 념촬영으로 이어졌으며, 엄영수 코미 의 헌신 덕분에 순창이 더욱 따뜻한 공 디언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 게 만들었다. 점심 만찬 자리에서는 참 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날 표창 석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 정책을 통해 모두가 웃는 순창을 만들 합을 다졌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 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따뜻한 복지를 군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보편적 복지 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

경천면 독립운동추모공원서 개최 전통제례·헌화·진혼무 진행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김기범) 가 23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 에서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 훈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 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 부보훈지청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추모제는 전통제례를 시작으로 헌화 와 분향, 추모사, 진혼무, 추모가 순으로 진행되며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감사 추모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 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번 추모 으로도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보 제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 훈 가족들이 존경받으며 더 나은 삶을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회 호국영령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가 23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제1회 호국영령 추모 제를 열었다. <사진=완주군>

사를 되새기고, 나리를 위해 희생한 분 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 김기범 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 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겠다"며 "앞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시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신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군은 국가유공 작으로 매년 호국영령 추모제를 정기 적으로 개최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한지로드'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선정

8천만원 지원 한지 유산 발굴 연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완주군이 지난 7월 대승한지마 을과 함께 '완주한지로드를 찾아 요 국가유산이 집중된 지역이다. 서'를 주제로 2026년 우리 고장 국 가유산 생생 활용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1980년대 전국 최대 한 지 생산지였던 송광마을을 중심 으로 한지와 관련된 유·무형 유산 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핵심 이다. 군은 완주한지의 역사를 정 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다.

대승한지마을이 소재한 소양면 은 ▲국가사적 위봉산성, 웅치전 적지 ▲명승 위봉폭포 ▲보물 송 광사(7건), 위봉사 등 완주군의 주

송광사는 과거 송광마을 주민들 에게 한지 제조 기술을 전수했으 며, 위봉사에는 천년의 세월을 간 이번 선정으로 총 8천만 원의 사 직한 한지 후불탱화가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대 승한지마을이 사업을 주관하며 완 주한지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 대승한지마을은 최근 전북교육 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통 한 지 사용 확대와 함께 한옥스테이 를 활용한 스몰웨딩, 칠순잔치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지와 한옥정원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25 시민의장 수상자 6인 지정

향토 명예 고취·지역발전 앞장 내달 흥부제에서 수여 예정

남원시(최경식 시장)는 향토의 명예 를 드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 발전 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시 민에게 수여하는 '2025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 문화장 한종춘(83 세) ▲ 체육장 유호근(58세) ▲ 효행 장 최영희(80세) ▲ 봉사장 조용봉(65 세) ▲ 산업노동장 안광섭(65세) ▲ 애향장 박노일(65세)씨 등이다.



에 헌신하며 후학 양 성과 도덕성 함양에

힘써왔다.





효행장 최영희

는 남원시체육회 부 회장으로 전통 스포

대회 유치에 힘써 지 화에 공헌하였다. 효행장 최영희氏 세에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장 한종춘氏

는 51년간 시부를 봉 양하며 효행을 실천 을 수상하는 등 효행



봉사장 조용봉

TO 00

산업노동장 안광섭

는 새마을지도협의 회 활동을 통해 꾸준 한 봉사와 사회적 약 자 지원으로 지역사 회 화합에 기여하였 산업노동장 안광

의 귀감이 되었다.

봉사장 조용봉氏

섭氏는 ㈜재성 대표 이사로서 사업장을 지역으로 이전해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지역경제 활성 화 등 고용 창출을

선도하였다. 애향장 박노일氏 는 지역고향 발전을

애향장 박노일 위한 다양한 지원사 업 추진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천하

체육장 유호근氏 여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남원시민의 장은 남원시민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수상자들은 시 츠 씨름 육성과 전국 상식에서 증서와 흉장, 어깨띠를 받고 지역사회의 귀빈으로서 예우를 받는 역 체육과 경제 활성 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한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후

한편, 남원시는 오는 10월 17일 제 33회 흥부제 행사에서 남원시민의 장 하였고 대통령 표창 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26일 와푸축제 개막…체험·먹거리로 물드는 완주 가을

트리익스트림-물고기잡기 등체험 13개 읍면 로컬밥상·장터 운영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고산자연휴양림과 시랑천을 중심으로 트리익스트림, 메 뚜기잡기 체험, 맨손 물고기잡기, 섭 패들보드, 워터롤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사생대회, 신바람 체조대회를 비롯 바란다"고 말했다. 해 농특산물 깜짝 경매, '완주 9품 달

인을 찾아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 행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와푸뮤직파티 등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완주 13개 읍·면의 마을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로컬밥상과 완주 농특 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장터도 운 영된다.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함께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 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많은 분들이 방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 문해 완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등 압류 조치

순창군은 2025년 제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농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 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터 농·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 을 확보한 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 방세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 예고서를 유도할 계획이다.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 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 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지방세 체 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1월 직 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직불금 지급 계좌에 압류 설정 및 추심으로 체납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향후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일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 린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주)대한패브릭 서한집 대표 3년 연속 순창 고향사랑 기부

순창 출신 기업인 (주)대한패브릭 서한집 대표이사가 23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올해로 3년째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서한집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 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서한집 대표는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천 마을 출신으로,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본사 를 둔 (주)대한패브릭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대한패브릭은 2006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변화와 혁신을 통해 300여 종의 안감에 특화된 회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국 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인지도 를 높여가고 있다.

서한집 대표는 "올해도 고향발전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 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까지 벌써 3년째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을 기 부로 실천해 주신 서한집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동호인 500명과 함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후원하는 2025 남 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 오는 28일에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 회 네트워크(이사장 이기영)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지역 예술인 및 생활 문화예술 동 호인 500여 명과 남원 시민이 함께하는 남 원의 생활 문화예술 축제이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원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18개 동호회의 음악·무용·농악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이 펼쳐지고, 나만의 예술적 감각을 담 은 생활용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다.

이기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이 사장은 "앞으로의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이 즐거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 문화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이 생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비자 승급 지원금으로 외국인 장기정착 돕는다

완주군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을 돕기 위한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 지역기반 비자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장 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승급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 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 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승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총 4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 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처는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과 완주외국인지 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기반 비자 승급 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 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 태권도 선수단 진안서 전국체전 전지훈련 돌입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북 태권도 대표 선수단 68명은 진안군을 방문 해 지난 22일부터 8일간 진안 문예체육회 관 및 관내 체육시설에서 전지훈련에 돌입

이번 훈련은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부 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 한 훈련으로 선수단은 청정 환경이 잘 보존 된 진안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훈 련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진안군에서는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전지훈련팀에게 는 체육시설 대관료 무료와 지역 체류비 지 원 등을 포함한 관광지 입장료 감면 및 편 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전지훈련의 메 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임실시장 일원서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 전개

임실군이 지난 22일 추석 및 APEC 정상 회의 개최를 대비하여 임실시장 일원에서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은 '새 시대, 깨 끗한 국토,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지 난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서 일제히 열리게 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임실군사회단체협의회 및 임실시장상인회, 주민, 공무원 등 총 100 여 명이 참석하여 임실시장 및 터미널, 중 심 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과 다중 밀집 구 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 다.

군은 추석 및 임실N치즈축제를 대비하 고, 국가적 행사인 APEC정상회의를 계기 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음으로 가족 손님 을 맞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 동을 10월 2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 하천 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 사각지대 환경정비 활동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 읍 면별 국토대청소 활동도 병행해 천만 관광 명품 도시 임실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

심 민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캠페 인 참여를 뜻깊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 린다"며 "10월 긴 연휴, 추석과 임실N치즈 축제에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이 임실을 찾 을 것이니만큼,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임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5년 개인정보 보호주간'운영

장수군은 2025년 개인정보보호의 날(9 월 30일)을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주간은 개인정보보 호위원회가 주관하는 범국민 캠페인의 일 환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마련된 행사 기간이다.

군은 군민들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올바른 정보 관리 문 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대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포 스터를 게재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5대 원칙'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개인정보 5대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 은 최소 원칙으로 목적 외 활용 금지 △엑 셀 내 숨겨진 시트·열·행을 확인해 개인정 보 노출 차단 △게시판 게시글이나 단체방 전송 파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주의 △개 인정보 서류는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 활용 금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 속적인 교육 필요 등으로,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

신덕 수천지구 선정 총사업비 78억원 확보

임실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덕 수 천지구가 선정, 국비 39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8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이번에 선정된 수천 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평가다. 간 하천 정비 1.0km, 교량 재가설 12개 소 등을 정비하게 된다.

수천지구 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 기, 관촌 재해위험개선지구에 409억원

하반기부터 수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지정 및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 성 용역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준비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군은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국 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 같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은 선정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한몫했다는

그 결과 임실, 오수, 금암 풍수해생활 권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1,084억원, 신

을 확보하여 활발하게 재해예방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극 통해 국가 예산 신청 및 현장 실사 등을 한 호우 및 집중호우로 군민의 인적・물 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재 해예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심 민 군수는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한 임실을 만드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 다"며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 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 해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 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청년(ON) 인재은행' 운영

청년 참여 확대 정보 기반 정책 눈길

무주군이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 하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 및 활성 화를 위해 '무주군 청년온(ON) 인재은 행'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청년(ON)

를 확보해 신뢰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 년 인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굴하 를 구축·운영한다.

청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청년들에게 공 공 목적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토대로 삼는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인재은행'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 립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며, 각종 세부터 49세까지 청년들의 인재 정보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특성에 맞는 청

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연령, 학력, 거주 기간, 취업 상태, 정 책 관심 분야 등의 인재 등록은 무주군 누리집(www.muju.go.kr) 내에 '무주 청년(ON) 인재은행' 메뉴에서 가능하 며, 인재은행에 등록된 정보는 다양한 또한 청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 기준으로 분류돼 자료 저장소에서(DB) 안전하게 관리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가을 정취로 물드는 붕어섬 생태공원

가을꽃10월중만개예정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에 끝없 이 이어지던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 이 자취를 감추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다.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품은 옥 다. 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은 올가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임실군은 가을의 감성을 물씬 담 은 경관 조성과 다양한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 는 이들에게 특별한 계절 여행을 선물한다.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붕어섬 생태공원은 총 1만 2천여 개의 국

화 화분으로 채워진다.

방문자센터와 숲속도서관 주변의 넓은 잔디광장에는 국화꽃으로 꾸 며진 가을 정원이 펼쳐지며, 산책길 곳곳에도 화분이 놓여 가을 향기를 따라 걷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

붕어섬의 가을은 국화에만 머물 지 않는다. 여름철 꽃들로 장식됐던 화단은 새롭게 정비돼, 코레우스, 핑크뮬리, 가든맘, 아스타 등 14종 의 가을꽃이 자리 잡는다.

특히, 봄에 붉게 물들었던 꽃양귀 비 군락지는 이제 10,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으로 탈바꿈했다. 오는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10월, 만개한 코스모스가 바람에 물결치며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사활'

군민의삶의질향상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동창옥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탄소 중립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 역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 주당 간사,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 원장 등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실 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진안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 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 기적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 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



신안군의외(의상 동상옥)가 '동어손 기본소득 시멈시역' 선정을 위해 석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추진할 계획이다.

설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임에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진안군이 포함될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 수 있도록 촉구안을 채택하는 등 발 빠 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 됐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할 수 있는

농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 동창옥 의장은 "진안군은 용담댐 건 다.한편, 진안군의회는 정부의 '농어촌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갑질교육 진행

진안군 전 직원 대상

진안군은 23일 군청 강당에서 전 직 다. 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공직자 반부 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 활 중에 겪게 될 다양한 부패 및 갑질 다.

한유나(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강사) 강사의 강연으로 열린 이번 교 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 리 군은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더 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욱 강화하고, 반부패 및 갑질 근절에 를 크게 높였다.

횟수를 확대하고, 청렴 골든벨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청렴 진안 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공직 생 상황에 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배우 게 되어 이해가 쉬웠고 유익했다. 앞으 로 공직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 앞장서 나갈 것이며, 군민에게 신뢰받 진안군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향 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 상을 위해 올해 청렴 관련 교육 진행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성수산자연휴양림등 3개소 방문

348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주요사업 장 3개소를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오수면 귀농귀촌 림과 국민여가캠핑장, 산림레포츠시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성수산 (자 설을 둘러보며 운영 실적과 향후 발전 연휴양림,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산 방향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휴양림과 림레포츠시설) △운암면 임실 기능성 캠핑장의 이용객 증가를 긍정적으로

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점을 지적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식품 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확인 했다. 의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과 향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23일 제 후 입주자 모집 계획을 점검하며,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흙 부족 문제에

이어 성수산 일원에서는 자연휴양 평가하면서도, 맨발걷기길 보수와 캠 먼저 오수면에서는 귀농·귀촌 희망 핑장 그늘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무주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

무주군이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8곳 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건지소·진료소 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독감(인플 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과 감염병관리팀장은 "의료기관별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 접종 대상자가 달라서 반드시 확인이 행한다.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해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종이 필요해 지난 22일부터 우선 접종 하고 있다. 2회 접종 대상을 제외한 6 엔자) 예방접종 관련 의료기관 및 접 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 부는 오는 29일부터 접종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 된다. 신은 10월 1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

에서도 10월 15일, 보건의료원은 11월 5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화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 필요하다"면서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특히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정

>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독감(인플루 종비 등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감 염병관리팀(063-320-8226)으로 하면

어린이는 면역력 형성을 위해 2회 접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총력'

제2차기관단체장상조회개최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 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 회의장, 황재현 장수경찰서장, 추영곤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 20여 명이 참여한 '2025년 제2 차 기관·단체장 상조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을 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6군을 선정 해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로 기대된다.

월 기준 20,390명)에게 지급되면 2년 을 검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 업에 선정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 간 약 734억 원이 지역에 순환하게 되 가기로 뜻을 모았다. 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 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소멸 위



장수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기관·단체장 상조회'를 통해 농어 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 명의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 지역이라는데 공감하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민 전체(8 며 공모 대응을 위해 기관별 협조 사항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마 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장수군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인구 2만 정책이다"며 "선정을 위해서는 기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수군이 반드시 이번 공모사 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장수=최진수 기자



부안 농업인 학습단체, 장학금 300만원 기탁

지난 22일, 부안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서 열린 '2025 부안군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 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에서 부안군 지역인 재를 키우는 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농촌지도자 부안군연합 회(회장 정병만)와 한국생활개선 부안군연합 회(회장 정진옥)는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에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여한 한국농촌지도자부안 군연합회는 지역 농업의 선진화·현대화에 앞 장서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경영 역량 강화 교육, 농업인 권익 보호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 해 왔다.

또한 한국생활개선부안군연합회는 농촌 여 성의 생활 향상과 소득 증대, 이웃돕기 음식 나 눔, 마을 환경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 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진안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 취약계층에쌀 10kg 45포기탁

진안군 성수면은 지난 22일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 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0kg 45포(135만원 상 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영근 이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수마 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 다 직접 농사지은 쌀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 누기 위해 기탁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오 영근 이장이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에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점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오영근 이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나 보다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께 도 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순석 성수면장은 "큰 피해를 입은 와중에 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오영근 이장님의 따 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일·성진 여객 김진태 회장, 임실군에 1천만원 기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동차 김진태 회장이 추석을 맞아 일 밝혔다.

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했다. 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대한적십

추석맞이온누리상품권전달 자사봉사회 임실군협의회 임점순 회장이 참석했다.

김진태 회장은 지난 2021년 대 지사(회장 이선홍)는 제일여객자 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 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해 전 임실군 관내 취약계층에게 온누리 북 제4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 상품권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3 며 올해까지 5년 연속 명절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실군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추석 기부금 1천만 원 외에도 적 전달식에는 이날 전달식에는 심 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1천만 원을 민 임실군수, 김진태 제일여객 회 기부해 올해 총 2천만 원을 후원

/임실=한병열 기자



SGC에너지(주), 군산시에 백미 10kg 총 200포 기탁

미성동·소룡동방문

SGC에너지(주)(대표이사 박준영) 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 눔을 실천했다.

지가 군산시 미성동과 소룡동을 각 각 방문해 백미 10kg 총 200포(각 100포)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SGC에너지(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탄탄한 중견

기업이다.

또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 역 이웃들에게 백미를 기탁하여 꾸 준한 나눔 을 이어왔다.

박준영 대표이사는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 미성동행정복지센터는 SGC에너 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미성 동과 소룡동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 복한 추석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

/군산=지송길 기자









(유)만성산업,임실군에장학금5백만원기탁

뜻한 나눔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유)만성산업(대표 전인석)이 지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 난 17일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심 민)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 기탁식에 참석한 (유)만성산업 탁하며 지역 인재들을 향한 변함 심춘도 이사는 "고향 학생들이 경 없는 사랑을 전했다.

1,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장학금은 임실군 내 청소 겠다"고 전했다. 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 여

임실군의 교육 발전을 향한 따 건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유)만성산업은 지난 2023년과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가길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이어오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금까지 총 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홍보대사최재명팬,어린이도서600권기탁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 층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과랑축제' 현장에서 장수군 홍보 말했다. 대사이자 군 출신 가수로 활동 중 달성군에서 방문한 한 팬이 어린 밝혔다.

이날 기탁된 도서는 역사, 세계 할 예정이다. 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행사를 기념하며 의미 있는 선물 을 하고 싶었다"며 "비록 작은 정 사례로 평가된다. 성이지만 장수군의 아동과 취약계

장수군은 이번에 기탁받은 도서 인 최재명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 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 센터, 취약계층 가정 등에 고르게 이 도서 600권을 기탁했다고 23일 배분해 아동들이 독서를 통해 꿈 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 전집류로, 팬은 "가수님의 첫 공식 어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의 마 음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뜻깊은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 체험 실시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관내 취약계층 아동 20명과 함께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찾아 진로체험 프 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직접 경험하 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접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아동들은 메타버스체험관에서 VR(가상현 실) 기기를 활용해 과학자, 게임개발자 등 다 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을 실제로 느끼고,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 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아동들은 메타버스체험관에서 VR(가 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과학자, 게임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했으며, 기존의 교과 서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미래 직업세계의 변 화를 체감하고 스스로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 려보는 시간으로 아동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새마을회, 취약계층 1800세대에 고추장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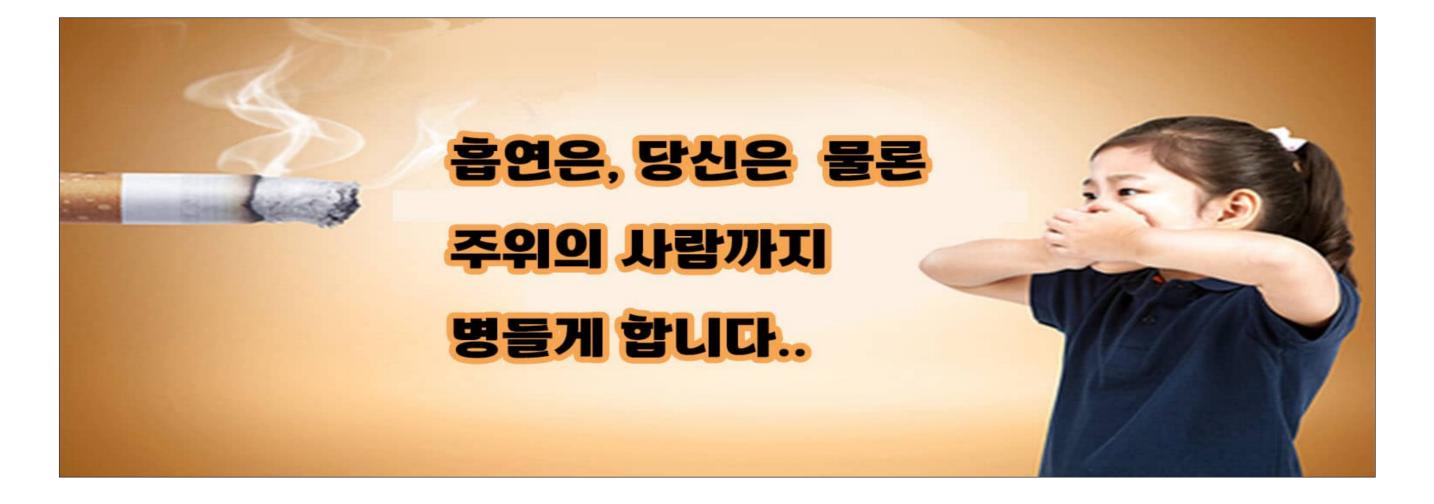
정읍시새마을회는 23일 정읍사공원에서 '사 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는 새마을회 임원과 부녀회, 지도자 협의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학수 시장의 부인인 정종순 여사도 직접 함께해 나 눔의 의미를 더하며 현장을 훈훈하게 했다.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춧가루와 된 장 등을 사용해 고추장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완성된 고추장은 23개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8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금순 부녀회장은 "정성으로 마련한 고추 장이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마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경찰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제대로 운영하자(1)

고상만

인권운동가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해야 한 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공권력의 또 다른 축인 경찰 개혁 논의는 왜 미진한가에 대한 우려 도 제기된다. 거악인 검찰의 문제 가 시급하니 우선 검찰개혁에 집 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 역 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문제 의식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 론 정부가 경찰 개혁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는 취지는 아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경찰국'을 시행 3년 만에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그간 자문기구 수준 에 불과했던 현 '국가경찰위원회' 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경찰청 장 등을 탄핵하는 소추권을 부여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려되는 경찰권 비대 화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 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경찰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26일, 검찰은 의정부 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정 아무개 경위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 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 류손상, 범인 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정 경위 의 공소장에 드러난 범죄 혐의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는 2020년 6 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 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 자 김 아무개에게 "사건을 모아 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돈 을 요구하고 이후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120만 원을 받았다고 한

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 중 정 경위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신 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중 몇 가지만 열거하면 이렇다. '(아) 무튼 오늘 돈 줘. (사건) 다 불기 소해 버릴 테니까' '내일 출근해 서 당신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 게' '하나는 약속할게. 당신이 절 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

수사팀장 정 경위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그는 피의자에게 '내년부터 (경찰 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 스템은 (피의자) 당신의 세상이 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 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 보다 나을 거야'라고 보냈다고 한 다. 그후 정 경위는 자신과 유착 한 피의자 김 아무개에게 별건으 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해외 도 피를 권유하며 자금까지 준 혐의 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구 속되자 그는 반년간이나 사건을 방치한 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또 다른 정 경위는 과연 없

과연 정 경위와 같은 행위는 지 금의 경찰 시스템에서 이례적인 것일까? 검찰은 정 경위의 단독 범행인지 의심하며 수수한 뇌물 의 상납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한 다. 정 경위가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 특히 충격적인 대목은 '수사 종결권' 언급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 경위는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뇌물수 수 범죄 도구로 썼다. '경찰권 비

서 들려오고 있다. 배수진 변호사 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걱정 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오전엔 화가 났고, 지금은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하 다. 수사종결권이 있으면 민원인 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해 사건을 살피고 기록을 검 토하고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하 는 것까지 다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배 변호사는 재차 자신 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렸 다.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태도는 아직 훌륭하지 못하다.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아니어야겠 지만- 몇몇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무시할 순 없다. 일부 경찰은 변 호인이나 고소 대리인과 의견이 다르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대화를 한 것인 지, 조롱을 당한 것인지, 싸운 것 인지 알 수가 없다. '수사는 제 마 음이잖아요' '수사권은 저에게 있 어요' 등등. '당연히 수사관님 권 한이십니다만 이런 걸 고려해 주 십시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지적하 는 목소리는 배수진 변호사만이 아니다. 최근에 만난 공익제보자 이상돈 씨 역시 '잘못된' 경찰 수 사에 대한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배치된 30대 초반의 '전문연구요원'과 기 업주 등을 내부 고발했다. 의무복 무 대신 기업에서 3년간 연구 업 무를 하는 직위였다. 하지만 그들

고사하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고 하며 전문연구요원과 특수관 계가 있는 기업주는 이를 문제삼 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병무청에 신 고하는 한편 경찰서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 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보내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각하' 처분. 피고발인이 근무 안 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허 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각하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고 한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 었다. 경찰은 고발인 이 씨가 관 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이 씨가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고발인은 관련 증거 가 있는 병무청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것을 고발인 조사 당시 경 찰에게 진술했다고 한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모 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민 생지원', '안전대응', '편의제공' 등 4개 분 야에 걸쳐 14개 과제를 마련해 도민과 귀성객이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분위기 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 누는 활기 넘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 향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 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 안 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도는 지 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 권 구매 한도를 15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20%까지 높였다. 농어민 공익수당 역시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 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 향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통해 지난해 보다 소비가 늘어난 도민에게 카드 사 용액의 20%를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 금도 지원한다. 이는 치솟는 생활물가와 성수품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 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는 취지다.

명절은 나눔과 돌봄의 시간이다. 이번 대책에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배려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를 살핌으로써 명절의 온기가 골고루 전달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누적된 부채 와 고금리 부담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 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 책도 병행,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려 는 의지가 엿보인다.

교통·의료 등 생활 편의 대책도 눈에 띈다. 도는 연휴 기간 귀성객과 도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 충하고,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한 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서비스 지 원 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종합상황실 을 운영해 화재,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 다. 이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

하지만 대책이 아무리 세밀하게 짜여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 면 공염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나 상생페이백과 같은 정책은 실제로 얼마 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또 취약계층 지원 역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도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풍 요와 나눔의 추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결국 도민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다.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뒷받침될 때 만이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을 체감할 수 있다.

전북도는 형식적 대책 마련에 머물지 말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어려 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 과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 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는 결국 함께 살 피고 나누는 데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다.

문 대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장에 은 제도를 악용했다. 실제 근무는 화 재 열 ▲ 오늘의시

아름다웠던 한마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잎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잎을 스쳤을 뿐인데 때로는 여름에도 낙엽이 진다.

살았을 때의 어떤 말보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 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 나희덕

온통 물든 것들은 어디로 가나.

사라짐으로 하여 남겨진 말들은 아름다울 수 있었다. 말이 아니어도, 잦아지는 숨소리,

일그러진 표정과 차마 감지 못한 두 눈까

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 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 순간 삶을 꿰매는 마지막 한 땀처럼 낙엽이 진다. 낙엽이 내 젖은 신발 창에 따라와

문턱을 넘는다, 아직은 여름인데.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 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 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당사목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1번지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전주지사 010-9845-4113 무주지국 010-6411-0835 남원지국 010-2285-3987 중앙지사 010-9678-4271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사-010-5242-3694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시, 청년농업인 성장·정착 전방위 지원









영농창업·생활안정·교육·교류 맞춤형 지원 추진 응자사업·농업용 드론·현장 멘토링·자율 소모임 지원 등 된 청년후계농이 영농에 필요한 정책자

익산시가 전방위 지원을 펼치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든든한 지원 계 자율주행 기술도입 △농업용 드론 △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등을 진행해 스마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 교육·교류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 고 있다. 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발판 마련

위해 연 1.5%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연하도록 돕고 있다. 지원하는 후계농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또 영농창업 지원사업으로 △농업기 시설하우스 설치 △선진영농 기술 도입

생활 안정 분야에서도 △청년창업농 현장 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기반 임차지 ◆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성장 원 △농자재 지원 △농가주택 리모델링 △행복주택 입주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시는 청년농업인의 창업 기반 마련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자 지원 사업은 2020년 이후 선발 도움을 주고 있다. 금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금융 이자의 0.5%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초기 창업 단계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직 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돕는 교육 및

시는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업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대학에 '청년딸기코칭반'을 개 설해 재배 전 과정부터 후작물 재배까지 속력 높여 특히 올해는 청년후계농의 금융 부담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세금과

형 교육을 통해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지원도 활발하다.

전수하는 '스마트팜 현장 멘토링'과 현 장 밀착형 영농 지도 등도 청년농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현장 영농 66명의 농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 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고 개선 방안 모색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재학생 대상

특히 자율 소모임 지원사업인 '생생동 또 선배농업인의 생생한 영농 경험을 이리'를 통해 공동 학습, 기술 교류, 친목 활동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 힘쓴다. 동은 청년농업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 지도를 통해 지난해 선정된 청년후계농 역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정착 기

익산시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지속적 아울러 한국농수산대학교와 2023년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류 활동과 워 크숍을 통해 현장 소통과 협력 기회를 스마트농업 현장 교육을 추진해 미래 농 넓히고, 전문가·선배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작물별 맞춤형 컨 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 는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청년농업인 간 영농 경험과 정보를 공 있도록, 맞춤형 애로사항 지원과 후속

특히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청 년후계농 31명에게는 상환 현황과 어려 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상환 유예· 연장 제도를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익산=최준호 기자



